

# “전주 도서관 여행 떠나요”

### 시, 24일부터 매주 토요일 특화도서관 5곳 돌아보는 여행 프로그램 운영

‘책의 도시’ 전주 곳곳에 들어선 특화도서관을 버스를 타고 둘러보는 여행 프로그램이 생겼다. 전주시는 이달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하루 동안 전주 지역 특화도서관 5곳을 돌아보는 여행 프로그램인 ‘우리는 도서관으로 여행간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여행 프로그램은 도서관여행 해설사와 함께 ▲전주시청 책가동 도서관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첫마중길 여행자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을 체험하며 해설을 들을 수 있는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관광사업이다.

참여자들은 일정의 체험비를 내면 ▲기념굿즈 이벤트 ▲팝업북, 시집, 아트북 등 특별한 도서 큐레이팅 ▲포토존 인생샷 찍기, 시 필사체험, 엽서 컬러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여행 버스는 1일 20명 정도로 탑



전주시는 전주지역 특화도서관 5곳을 돌아보는 여행 프로그램인 ‘우리는 도서관으로 여행간다!’를 운영한다.

승을 제한한 가운데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행된다.

참여 희망자는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063-230-18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삶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 ▲책을 읽고 쓰고 출판하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독서문화 ▲가보고 싶은 책여행 도시 ▲전주가 기억하는 동문 책의 거리 등 5개 중점방향을 골자로 한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향후 시는 이종호수도서관, 서학마을 예술전문도서관, 전주천 둔치 천변도서관, 동문거리 한책방 도서관 등 더욱 다양해진 특화도서관을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박남미 전주시립도서관장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삶이 다시 책이 되는 시민 삶의 중심이 되게끔 노력하고 있다”면서 “책을 통해 시민과 여행객을 연결하는 전주만의 차별화된 도서관 여행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사람 온(溫)마음 푸드 나눔터 동참

### 시, 식품 후원업체 10개소 대표와 기부식품 제공사업 물품 지원 협약 체결

취약계층의 끼니 해결을 돕기 위해 먹거리 등을 기부하는 동네빵집과 식품가게가 늘고 있다.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도 동참키로 해 취약계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14일 전주시장실에서 기부식품 후원업체 10개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부식품 제공사업 물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 물품 지원은 자영업자 등이 위기시기를 위해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35개 등에 기부하는 ‘전주사람 온(溫)마음 푸드 나눔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지난 4월 10개였던 참여 업체가 이번에 10개가 추가돼 총 20개로 늘어났다.

이날 협약 체결 업체는 ▲이마트 전주점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홈플러스 전주점 ▲동백식자재마트 ▲하나유통 ▲자연유통 ▲만우식품 ▲모



차트베이커리 ▲하나비베이커리 ▲이중현 제빵소 등 대형 유통업체도 있어 기부물품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가 기부한 식품과 물품 등은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 전

달된다. 향후에도 시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생단체,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부업체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한국전쟁 민간인 유해매장지 추가 확인

### 전주시, 유해매장 추정지 전수조사 최종보고회 가져… 황방산

### 산정동 소리개재 외에 완산동 강당재 유해 매장됐을 가능성 높아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에게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 유해매장지로 황방산과 산정동 소리개재 외에 완산동 강당재가 추가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1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건우 전주대학교 박물관장, 유족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전수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유해발굴 조사를 맡은 박현수 전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추진된 전주지역 유해매장 추정지 탐문조사 결과와 고지형 분석 결과가 소개됐다.

발굴 조사는 그간 유해발굴이 진행된 황방산과 산정동 소리개재는 물론이고 완산동 강당재와 동부교회(구 전주형무소), 인후동 일대(구 전주농고,

구 완주군청, 건지산) 등 매장추정지 전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증언자 모집을 통한 구술·탐문조사와 증언지역에 대한 고지형분석이 병행됐다.

조사 결과 황방산과 산정동 소리개재 외에 완산동 강당재에도 유해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발굴로 경작되고 있는 강당재 구역은 탐문조사 중 일부 증언에서 두개골 등이 확인됐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강당재 구역에 대한 유해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부교회나 구 전주농고, 건지산 등 인후동 일대는 도시화 개발로 인해 유해 매장 추정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완산동 강당재(250㎡) 등을 새롭게 포함한 유해발굴 계획을 수립해 3차 유해발굴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2019년부터 황방산과 산정동 소리개재 등에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총 78개체의 유해와 213건의 유품을 발굴해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무”라며 “희생된 영령들의 명예 회복이 이뤄지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도록 유해발굴이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14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김건우 전주대학교 박물관장, 유족회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매장 추정지 전수조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전주시 덕진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 총력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장병호)는 오는 30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78곳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5월 11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12만 원으로 3배 늘어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으나 불법주정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덕진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단속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2600여 건

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덕진구는 오는 30일까지 이동식 단속차량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순찰횟수를 증편하고 자전거순찰대를 활용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연중 휴일 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우범지역 주변에 단속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동 주민센터와 은행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홍보물 2만 장을

배포하기로 했다.

구는 다음 달까지 전일초등학교 등 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5곳에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장병호 구청장은 “미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사고위험 없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통학안전 걱정 없는 덕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자연생태관, 탈플라스틱 전환 위한 환경사랑 공모전 수상작 특별전시

전주자연생태관이 기후위기 극복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자연생태관은 오는 9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협력해 폐품으로 만든 입체 정크아트(Junk Art)와 2020 환경사랑사진 공모전 당선작을 기획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의 긴급함과 플라스틱 및 비닐의 남용



으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 교란 등

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내 자연생태관 야외광장에 빗물을 재이용하는 ‘빗물폭포정원’과 전주시 수소연료전지 실증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홍보 및 폐열을 활용한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관련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